

# 담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지방소멸 극복 기대

2024년생부터 매월 20만원씩 출생일 이후 11개월부터 적용 신청한 달부터 소급 불가 원칙 출산 장려 양육비 지원 목표

담양군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생부터 매월 20만원씩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시작한다. 12일 담양군에 따르면 출생기본수당 지급대상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

고를 하고 담양군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 아이와 보호자 모두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가구다. 지원 금액은 담양군과 전남도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출생기본수당은 2025년부터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1인 기준 매월 20만원씩 총 18년간 4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당은 아동의 출생일 이후 11개월부

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담양군은 신청 대상자에게 우편과 문자 발송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 기준 등은 한시적으로 적용돼 2026년부터는 변동 가능성이 있고 매월 15일 기준 실거주확인 등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담양군은 지난해 출생 수당

신설을 위한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맺고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정책을 마련했으며 군은 '인구늘리기 조례' 일부를 개정해 출생기본수당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당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첫 시행인 만큼 많은 가정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담양군 출생기본수당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담양군' 건설과 더불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시행 곡성군, 설명절 대비

곡성군이 지난 9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군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12일 곡성군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1개소, 터미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곡성군과 곡성소방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내실있게 진행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건축물 균열, 손상 누수 등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는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직접 설명하여 명절 연휴 전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예정이며 접지선 미설치 및 피난 탈출구의 물건 적재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밖에 곡성소방서, 곡성군 시장상인회 등과 함께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협의회를 개최해 다가오는 화재예방 등에 대한 사전회의도 가졌다.

곡성군 관계자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앞으로도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화순군, 16일 군청 대회의실서

화순군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화순군청 대회의실(의화동 4층)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 생활 속 고충 민원을 상담하고 해소하고자 진행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4개 협력 기관의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해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화순군과 인접한 보성군 주민도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주민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청 기획감사실(061-379-3233)을 통해 사전 상담 예약을 접수할 수 있으며 예약 없이도 당일 행사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임경우 기획감사실장은 "평소에 접근이 어려웠던 군청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이나 법률, 금융, 지적, 소비자 보호에 관한 상담이 가능하니 많은 군민이 참여해 평소 가지고 있던 고충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 시가지 제설 작업 '구슬땀' 영광군, 6일부터 10일까지

영광지역에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누적 24.4cm의 폭설이 내려 쌓인 가운데 장세일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시가지 제설작업으로 연일 구슬땀을 흘렸다.

12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2시20분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자 나흘간 200여명의 공무원이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야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장 군수와 공무원들은 비상근무 기간 빙판길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들과 합심해 상가 주변과 인도, 버스 승강장 앞 등 시가지 주요 길목 곳곳에 쌓인 눈을 깨끗이 치우고 골목길 제설작업에 임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앞으로도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 부문을 각별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영광군에 24.4cm의 눈이 쌓였다. 영광군 관계자들이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10일 시가지 후속 제설을 펼쳤다. 영광군 제공

##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화순군, 2월 7일까지

화순군은 12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며 한 세대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농막에 주소지를 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화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수당 지급액은 대상자당 연 60만원이며 3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자금의 역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경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 곡성군, 일반음식점 대상 입식테이블 지원

24일까지 접수

곡성군은 식품위생업소의 음식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2025년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바꿔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800만원, 사업량은 테이블 100세트로 1세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곡성군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득한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영업주, 기존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고자 하는 영업주, 기존 사업 수혜업소 중 20세트 미만을 교체한 영업주이다.

제외 대상은 국세, 지방세 체납자,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곡성외식

업주, 보건사업과 위생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곡성외식업주부(061-363-3948) 또는 위생팀(061-360-8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관광객과 곡성군을 찾는 모든 분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 환경을 조성하여 곡성군의 음식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 영광군,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

2개월령 이상 강아지 의무 등록

영광군은 12일 군민들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다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영광군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정부24'(www.gov.kr)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영광군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

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영광군민은 무료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조성기 축산식품과장은 "동물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며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군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